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빈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동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그가 임하시는 날

(말라기 2:17 - 3:5)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그가 임하시는 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그 날은 바로 심판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므로 예수님이 바로 심판주이시고, 심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까지 한 그 시대에 정의의 하나님이 오실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오실 때에 불과 잿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특별히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한 예언자였습니다. 이혼, 잡혼, 폭력,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한 죄를 지적하면서 마침내 심판주가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분이라는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의 중에 오시는 하나님은 자신에게 대항하는 백성들을 의롭게, 정당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의를 공격하는 이스라엘

“너희가 말로 여호와의 피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피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2:17).

말라기에는 ‘어떻게’ 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말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분명 죄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죄를 지었느냐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을 부으시는데도 그들은 그 사랑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느냐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으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반신밖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말로만 사랑했고, 절름발이 제물을 바쳤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1:6).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할 때 그들은 언제 주님을 더럽게 했느냐고 반문합니다(말1:7). 부패한 음식을 제물로 바치고, 도적질 한 것으로 십일조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력하여 얻은 정당한 수입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함과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거저된 제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함이니라” (2:17).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죄를 거듭 범하면서 핑계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평가 하려고 합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한 손에 쥐시고,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뿐 아니라 별도 내리시고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공격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지은 창세기 주석책에 아담이 한 말이 나옵니다. “당신이 지은 하와가 사과를 먹으라고 해서 먹었으니 결국은 하나님 당신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핑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이는 환경을 탓할 것이고, 또 어떤 이는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 탓이라고 변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불의는 세상에서 계속 생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날 악을 반드시 심

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얼마 동안은 악이 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심판날이 되며 이때 모든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2. 심판을 언기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3:1)

하나님은 심판을 하러 오시기 전에 한 전령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전령사, 곧 내 사자는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사 40:3-5)으로 사복음서에는 이 사람을 세례 요한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세례 요한을 예언한 것입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은 40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 침묵을 깨뜨리면서 메시아를 준비하며 나타난 사람이 광야의 소리를 외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포박하는 자의 겹물과 같을 것이라” (3:2).

그가 임하시는 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그 날은 바로 심판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므로 예수님이 바로 심판주이시고, 심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고 했습니다(3:1), 이 사실 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까지 한 그 시대에 정의의 하나님이 오실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오실 때에 불과 잿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종말은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고, 개인적 종말은 개인의 생명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말씀을 모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날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하고 구원을 힘입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고, 하나님을 영접할 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반기 열린프로그램 개강 한 주 앞으로

3월7일(월) 사시기반을 시작으로 10주간

2005년 전반기 열린프로그램이 3월7일(월) 사시기반 강의를 시작으로 10주간의 학사일정을 시작하게 된다. 또한 열린프로그램 신청을 위해 오늘 주보에 신청서가 간지로 배부된다. 열린프로그램은 성도와 이웃 주민들이 부담 없이 와서 강의를 듣고 여가 활용도 할 수 있도록 모든 프

로그램을 개방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웃주민과 성도들의 좋은 배움의 기회도 될 이번 2005년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에 많이 등록하여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열린 프로그램 등록 접수는 사무국에서 하며 수강료는 1강좌당 10,000원이다.

70인 전도대 총회(전도대회) 은혜롭게 마쳐

지난 22일(화) 저녁7시에 있었던 70인 전도대 총회가 전도위원회(위원장 윤찬오장로)의 후원으로 전도대회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전도대 총회는 70인 전도대원을 비롯하여 초청받은 교구일꾼, 남녀전도회 임원 및 교회학교 교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이중윤 목사님의 주님의 대 명령인 복음전과 사명에 대한 말씀과 이어진 순서들을 통하여 참석하였던 성도들은 주어진 전도사명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전도위원회에서는 전도학교를 이수한 직분자들의 목요축회전도팀에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총회부터 70인 전도대에서는 전도활동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한 대원에게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MDP사업의 일환으로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2004년 기준 MDP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 전도활동감사장(1년차)
 - 수요일후전도팀 : 주경자, 이봉선, 김숙자, 김혜경, 정연택, 조정옥, 홍광숙 (7명)
 - 수요일간전도팀 : 한상준, 안준홍, 김금준, 서경애, 이영숙, 함언호 (6명)
 - 목요일후전도팀 : 박이선, 김은순, 임명숙, 김동진, 김영희, 심명숙, 이창희, 임인선, 장정화 (9명)
 - 토요일후전도팀 : 이경구 (1명)
 - 토요일간전도팀 : 최규초, 은기장, 김은태 (3명)
- ◆ 전도협력감사장(1년차)
 - 문서전도팀 : 이난화, 광미숙, 박현영, 석상화, 안평덕, 박순복, 장효정, 최미경 (8명)
 - 중보기도팀 : 이인선, 김숙자, 이정연, 김양숙, 이미연, 전행자, 최향봉, 허현숙 (8명)
 - 전도지원팀 : 주동재, 유기찬 (2명) 총 44명

찬양대 양성반 개강

3월 6일(주) 오후 1시 30분 601호

찬양대 양성반이 다음주 3월 6일 오후 1시30분 601호에서 개강된다. 찬양대원으로 봉사 하고자 하는 성도는 누구나 등록하여 이수하여야 하고, 7주의 교육을 받은 후에는 원하는 찬양대에서 봉사할 수 있다.

찬양대 양성반은 운영국 목사의 영성훈련과 박정선 장로의 지도로 발성법, 호흡법, 악보보는 법, 음악 기초이론 등 찬양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게 된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천국시민 양성 - 은빛찬양대

영과 혼을 다 바쳐 찬양하는

고운희 권사(4교구)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슬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씻기시어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배틀에 지나가는 빠른 복과 같은 세월에 우리의 머리는 백합꽃으로 변하여 향기를 내며 아리직게 찬양합니다.
 탄물을 지으신 아버지!
 바다는 파도쳐 소리내어 찬양하고, 시냇물은 흘러 소리내어 찬양하며, 바다 밑 모든 생물들도 꼬리쳐 찬양하고 꽃들조차도 피어 향기내어 주님께 찬양합니다.
 바람은 초목을 흔들며 소리내어 찬양하며 모든 새들은

지저귀어 찬양하고 땅 위의 짐승들은 소리내어 주님께 찬양합니다. 무명초도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그 날에 천군천사와 화답하며 찬양하고 하늘과 이 땅에 울려 퍼지는 나팔소리의 함께 영광의 생명 나무 길로 걸어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각자의 상급을 받고 주님께신 거룩한 나라에 가서 주님 곁에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슬람미 여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은 환희와 기쁨으로 차고 넘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시순절의 특상

나의 비아 돌로로사 Via Dolorosa

이은희 권사(5교구)



인제부원가
 내게 지워진 실자가를 메고
 주님 가신
 그 슬픔의 언덕길을 오릅니다.

세월의 무게만큼 무거워진 실자가
 무릎이 파팍해지고 어깨가 아려 쓰러지려 할 때마다
 예수님의 실자가를 나누어 진 구려내 시몬처럼
 나의 실자가를
 기도로 데어주는 성도들이 있어
 다시 이 길을 오릅니다.

뜨거운 모랫바람에 가슴이 막막해지고
 홀로 이 길을 걷는 것이 두려워질 때
 생수와 같은 위로와 사랑의 설겅이 있어
 이 슬픔의 길을 다시 오릅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비아 돌로로사의 끝은
 골고다의 아련 죽음을 넘어
 태양처럼 빛나는 부활의 승리임을

이제
 그 아름답고 떨리는 순간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
 나의 슬픔의 길
 감사로 올라갑니다.



오랜 기간 투병 중인 나중영 집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이 지면을 통해 감사 마음을 전합니다.

3.1절 특집 - 신앙의 선배 조기철 목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신사참배는 십계명의 제 1 계명과 같이 여호와와 이름에 대한 범죄요 하나님께 대한 배신입니다..." 일체의 특징이 나날이 심해지던 1936년,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한 주기철 목사는 첫 날 설교에서 이렇게 외쳤다.

이상승배 강요에 온몸으로 맞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주기철 목사는 한국기독교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분으로 평가받고 있다. 1897년 경남 진해에서 태어난 주기철목사는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연희전문을 1년 다녔다. 1919년 3.1만세운동 당시 21살의 나이로 고향인 웅천의 성내리 만세운동을 위해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돌리다 2달간 구류를 살았다. 이듬해 주기철 목사는 마산 문창교회 사경회에 참석했다가 신학교 진학을 결심하게 된다.

1936년 주 목사가 평양 산정현 교회에 부임하면서 때마침 일체의 탄압은 본격화됐다. 당시 평북 노회가 신사

참배를 결정하자 이에 흥분한 평양신학교 학생이 노회장의 기념식수를 도끼로 찍어 버린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일 본경찰은 이와 관련시켜 주기철 목사를 검거했다. 주 목사는 얼마 후 석방되기는 하였으나 그 해 9월 제27회 장로회 총회에서 일체의 압력으로 신사참배가 가결되고 말았다. 본격적인 신앙투쟁에 돌입한 주기철 목사는 1938년 가을에 두 번째로 불잡혔고 경북 의성경찰서에 7개월간 구금되었다. 의성경찰서에서의 생활은 그가 받은 고통 가운데 가장 혹독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족들이 전했던 주 목사의 모습은 온갖 고문으로 몸이 찢기고, 손톱, 발톱이 다 빠지고, 하루에도 기절하기를 여러 번이었다고 한다. 주 목사는 빛날 이때의 고통을 이렇게 술회했다.

"의성에서 받았던 육체적인 고통은 그래도 견딜 수가 있었는데, 정신적인 고독감은 정말 견디기가 어려웠다. 70여명의 동지가 하루아침에 다 잡혀 왔고 하룻밤 자고 나면 한 동지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일본에 항복하곤 했다.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두 사람의 동지가 나가버리고,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나가버리고... 12월이 다 돼 가니까 그 수많은 동지가 다 나가버리고 마지막 네 명이 남아 끝까지 항거했는데, 그때 받았던 정신적인 고독감, 외로움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

죽음의 시련을 이겨낸 주 목사는 1939년 6월 첫 번째 주일 석방돼 그 길로 평양으로 올라와 산정현교회 강단에

서 설교를 했다. 눈물의 환영을 한 교인들을 향해 주 목사는 로마서 8장18절과 32절, 39절 말씀(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으로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를 했다. 이 설교사건으로 주 목사는 세 번째 옥고를 치르게 되고 그 해 12월 평양노회는 일체의 압력으로 임시 노회를 열어 노회결의 형식으로 주기철 목사를 산정현교회 목사직에서 파면시켰다.

그는 평양산정현 교회에서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 고초 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도른채 하리오까.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전에 찍어야 시퍼렇게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라는 생애 마지막 설교를 했다. 그후5차례에 걸친 투옥과 고문으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옥신으로도 일본의 패망을 예언하던 주기철 목사는 해방을 1년 앞둔 1944년 4월 21일 오후 9시 평양의 감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지여 나를 불드시옵소서!" 라는 마지막 기도소리를 남긴 채 47세의 나이로 순교했다.

주기철 목사의 신사참배에 대한 항거와 순교는 한국교계에 큰 가르침으로 남아 지금도 성도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김민철(편집부)

만민에게 전도 - 해군사관학교 졸업예배를 참석하고



복음으로 파송 받은 총무공의 후예들..

결론부터 쓰자면 대한민국에 행하신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축복과 계획을 우리 눈으로 보고 절로 감사가 넘치는 하루였다.

지난 2월23일(수)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비전2020 임원들을 비롯한 서울교회 성도들과 강남OCU 회원들은 버스 2대에 승차하여 멀리 진해에 있는 해군사관학교로 향하였다. 5시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진해에 도착한 일행은 담당장교의 안내로 진해 해군 기지에 정박 중인 최신에 해군 할정을 견학하며 맨주먹으로 나라를 세워 이제는 세계 어느 곳에 내보내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결정체를 보며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

오후 3시, 진해 바다를 내려다보는 야트막한 언덕위에 하얗게 지어졌 아름다운 해사교회에 서울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해사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관계자들이 자리를 툇틈없이 가득 채운 가운데 제59기 기독교사관생도 졸업 및 입관 감사예배가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 설교를 맡으신 우리교회 이종윤 목사는

요한복음 13장 12-17절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를 주제로 설교를 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실을 들어 제자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세상의 이치요 당연한 윤리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발 씻김을 입은 졸업생 여러분은 이와 같이 부하들을 사랑하고 먼저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 부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의 유명한 대학교의 모토를 보면 모두가 다 성경과 하나님으로 귀결이 됩니다. 또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을 보면 97% 이상이 '하나님을 아는' 기독교인이거나 유대인들입니다. 이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마치셨다.

이번 59기 해사 졸업생중 무려 60명의 생도가 기독교

인으로 복음에 힘입은 이들이 자대에 배치 받아 가면 다윗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영해수호에 전념하는 한편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게 된다.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의 길을 가고 있는 이때 백합꽃과 같이 정결하게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난 이들을 보며 2020년까지 민족의 75%를 복음화 하기위한 우리의 기도를 조



유태서 (편집부)

한국서민양성 - 사랑부 겨울 성경학교를 마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박광옥 집사 (사랑부 교사)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라는 주제로 열린 사랑부 겨울 성경학교가 하루 동안의 짧은 일정 가운데서도 알차게 진행 되었다. 개회예배에서 이용식 목사님은 마태복음 16:13-16절을 본문으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다.

이날 성경학교는 공과공부, 인형극, 퍼즐, 사랑고백 등 사도신경에 대한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반복학습을 함으로 우리가 그동안 너무도 무심하고 소홀히 암송하였던 사도신경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10) 는 성경 말씀처럼 진실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



한 우리의 믿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고백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래 관련학단의 특별연주로 더욱 은혜로우 분위기 가운데 공과공부를 마친 후, 인형극을 통해 조용히, 그리고 침묵 속에 달아오른 분위기는 사도신경 짜 맞추기 게임을 통해 서로 경쟁적으로 외우고, 짜 맞추면서 고조되더니 드디어는 게임에서 진 유치부 학생이 울음까지 터뜨리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에 대한 고백의 시간으로 이어져 각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였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사랑부의 학생 모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은혜 가운데 아쉬운 시간을 마쳤다.

한국서민양성 - 교육: 겨울 성경학교를 마칩니다...

작은 손 모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가득 찬 신앙

롭게 진행된 이번 겨울성경학교는 올바른 신앙고백을



주제로 연령별로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영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유년부는 체험학습을, 초등부는 미니올림픽을 개최하는 등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해 더욱 쉽고 재미있게 말씀을 체험해볼 기회를 가졌다.

그 외에도 찬양과 율동, 만들기 시간, 공동체 훈련, 성경공부시간 등으로 이틀간의 일정이 진행되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각 교회 학교는 아이들에

게 올바른 신앙고백이란 무엇인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는 참으로 귀중한 신앙의 과외수업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면서, 이번 겨울성경학교를 계기로 더욱 튼튼하고 푸르게 신앙의 꿈나무들이 자라나길 기도해본다.



오주명 (편집부)

의 고백이 교회를 가득 채운다.

자그마한 손을 가슴에 모으고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것먹이부터, 훌쩍 커 버린 초등학생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 목소리로 주님이 참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성경말씀을 재미있게 가르치기 위해 여념이 없고, 아이들은 하나라도 놓칠 새라 커다란 두 눈을 빛낸다.

이렇게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입으로 고백하고, 몸으로 체험 할 수 있는 교육1국 겨울 성경학교가 21일(월)부터 22일(화)까지 이틀에 걸쳐 교회에서 열렸다.

약 300여명의 아이들이 참여해 은혜



동정

- 이종윤 목사는 현재 LA 열린 문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으며 3월 3일(목) 귀국한다.
- 승진: 권광환 집사(10교구) 성례초등학교(장동구) 교장 승진
- 득녀: 5교구 양봉수 집사순 성도
- 주간식당봉사: 스데반회(2월27일) 권사회(3월6일)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 KBS(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종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정석강해 매주 월 오전 5시30분 · HLKN 106.9 MHz(기독교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인터넷방송 - (http://www.c-highway.com)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7학기 복회자 세미나 · 16학기 서울성경대학 · 열린 프로그램을 위하여
2.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이종윤 담임목사께서 집회를 인도할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4. 국론 통일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말씀 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